

오미크론과 공존 시도하는 유럽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규제 폐지

“감염위험과 함께 살 수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오히려 방역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세와는 반대로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토르 총리의 발표 즉시 대부분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식당·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밤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 제한도 없어졌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적용되던 10명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만원 관중이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도 있게 됐다.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사람도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도 입국 시 별다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스토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 백신이 보호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위험과 함께 살게 된

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 국가 중 1호로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한 덴마크는 이날 코로나19를 더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하며 모든 방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패스 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모두 과거사가 됐고, 대형행사나 바, 디스코텍에 가는 것도 자유로워졌다.

대중교통이나 상점, 레스토랑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병원, 건강관리 시설, 요양원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의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오스트리아도 이날부터 식당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오는 12일부터는 일반 상점에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제시 의무도 폐지된다. 오스트리아는 다만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벌금으로 최대 3600유로(480만원)를 내야 한다.

핀란드도 이날부터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이달 안에 대부분 규제를 끝낼 예정이다. 당장 이날 음식점의 영업 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

서 9시로 완화되고, 각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극장 등도 문을 열 전망이다.

앞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던 네덜란드는 지난달 26일 그동안 지속하던 ‘봉쇄’ 조치를 끝내고 식당과 술집, 박물관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했다. 극장,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 시설과 축구 경기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유럽 내 오미크론 변이의 진원지로 꼽혔던 영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 주요 방역 규제를 담은 ‘플랜 B’를 폐지했으며, 확진자 자가격리도 3월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 식당과 술집에 적용했던 오후 8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방역패스 제도도 없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방역 완화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이 덜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염을 막는 게 더는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등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매우 우려할 만큼 늘었다. 이 바이러스는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거나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공동 기자회견 하는 푸틴과 오르반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을 무력으로 탈환하려 할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 추진 TF 첫 회의...한일 역사 논쟁 예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한 후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한일간 역사 논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다카자키 시게키 관방부 장관보가 주재하고 외무성, 문부과 학술, 문화청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한 사도 광산 TF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내각관방은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다.

내각관방은 사도 광산 TF의 설치 목적에 대해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기본적 입장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근거 없는 중상에는 의연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효과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는 이유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와 역사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첫 회의에는 다카자키 부장관보와 내각관방 내 각심서관, 공보외교담당 일본 정부 대표, 외무성의 종합외교정책국장 및 국제문화교류심서관, 문부과 학술 국제총괄관, 문화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해양 온난화, 2014년 ‘선’ 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팀

“100년 전 ‘이상 고온’이

이제는 ‘평범한 수온’ 됐다”

해양 온난화 수준이 2014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인 1870~1919년에는 조사 대상 기간·지역의 2%에서만 나타나던 해수면의 이상 고온 현상이 2019년에는 전체 해양의 57%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지구 온난화 탓에 100여 년 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평균’이 된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구팀이 전 세계 해양을

위·경도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1870~2019년 월간 해수면 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이상 고온’ 현상이 전 세계 해양의 50%에서 관측된 2014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대서양은 이 선을 넘어선 시점이 1998년으로 가장 빨랐고, 인도양도 2007년 이 선을 지나쳤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PLoS)이 발행하는 개방형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기후변화’(PLoS Climate)에 ‘역사적 해양 이상 고온 현상의 표준화’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수족관 소속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카일 판하우트는 가디언에 “기후변화가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국 총리, 지난해 1월에도 송별파티 참석

봉쇄 기간에... ‘파티게이트’ 지속

일명 ‘파티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또 다른 와인 파티에 참석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2021년 1월 14일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개인 비서 2명의 송별 파티에 참석,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연설을 하는 등 5분 정도 머물렀다. 당시 영국이 전국적으로 3번째 봉쇄 정책을 시행하던 때였다. 영국은 2021년 1월 6일 봉쇄령을 내리고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제외하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업무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두 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가디언은 송별 파티의 주인공이 현재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술에 취하기도 했다고 전

했다. 또 이 사건이 ‘파티 게이트’ 조사를 담당할 영국 내각부 공직윤리담당 공무원 수 그레이의 수사 기록에 포함됐지만, 수정된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레이는 지난달 31일 2020년 5월~2021년 4월 사이 열린 총 16개의 모임을 조사한 내용의 12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세부 사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보고서를 업데이트해 그레이가 확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존슨 총리가 경찰 조사 후 코로나19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정적으로 그렇다”며 이 문제가 ‘중대한 공약’임을 인정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로 봉쇄 중이던 2020년 5월 20일 총리실 뒷마당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난민촌 폐쇄 미얀마난민 3천명 돌려보내

미얀마 쪽 강둑서 오도가도 못해

태국 정부가 최근 미얀마 난민 3000여 명을 돌려보냈지만,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두려워 미얀마 쪽 강둑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은 구호단체 관계자를 인용, 태국 당국이 최근 북부 딱주 매송 지역의 미얀마 난민촌을 철거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난민 3천여 명을 미얀마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미얀마군 공세가 심해지면서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4700명 이상이 태국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3000여명은 카렌주 래꺼꼬 지역의 주민들로, 지난해 12월 중순 미얀마군이 공습과 포 공격까지 하자 이를 피해 파용 인 강을 건너 태국으로 건너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목장 지대에 난민촌을 형성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난민촌 철거 이후 미얀마 쪽으로 강을 건너 돌아갔지만, 살던 곳으로 가지 않고 강둑 인근에 임시 움막을 짓고 생활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강둑에서 생활하는 한 피란민은 방송에 “식수가 부족하다 보니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다가 많은 이들이 설사 증상을 보였다”면서 “특히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 많은 아이가 아프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